

영천경마공원, 건축인·허가 최종 완료

내년 초 착공, 2024년 하반기 1단계 사업 개장 전망 밝아



영천시와 한국마사회는 금호읍 일원의 '영천경마공원(벚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 건축허가를 최종

완료했다. 예정대로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4년 하반기 1단계 사업 개장 전망이 밝아진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제4경마공원인 영천 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6월 신청하여, 8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하고 관계법령을 검토 후 15일 최종 건축인·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천경마공원은 금호읍, 청통면 일원 145만㎡(44만평)의 부지에 총 연면적 2만1천㎡이며, 주요 시설은 관람대를 비롯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마사시설, 중계탑, 매표소 등 총 29개동이 조성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영천경마공원이 개장되면 일 최대 9천여 명의 입장객 방문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조 8천억원, 고용효과 7,500여 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人事, 5급 승진 3명

市,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연말 국장급 5명 떠나도 승진 자격자 없어

직무대리 관심 쏠려

영천시는 지난 22일 5급(사무관) 자리에 행정-△정책기획실 정옥구 △기업유치과 정유찬, 환경-△자원순환과 허창열, 3명을 승진시킬 예정이다.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순용환 교통행정과장, ▲임동식 화북면장 3명이 사무관 퇴임공로연수(6개월)로 떠나는 자리다.

또 오는 연말에는 고위직 국장급이 무더기 퇴임(공로연수)한다. ▲안규섭 행정지원국장, ▲양병태 경제산업국장, ▲이종권 문화관광국장, ▲김중호 도시건설국장, ▲신재근 의회사무국장 등 행정직 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최수영 영천시보 건소장은 공로연수 대신 1년 연장근무를 마치고 정식 퇴임해 6명의 서기관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대규모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연말에 공모직 보전소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5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하지만 대상자가 없는게 흠이다. 즉, 사무관 승진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아 직무대리로 지명될 경우 연말이 아닌 내년 3월에 2명, 6월에 2명, 8월에 1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영천시는 경북도로부터 인사규정 위반 경고를 받은터라 연말 사무관 승진요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영천시는 경북도의 종합감사결과 부당하게 직렬을 조정해 승진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를 승진시켜 지적받았다. 또 지방서기관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관 3명을 서기관급인 국·소장 자리에 앉히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난 10월 12일 경북도로부터 기

관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인사난맥상을 보여왔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원칙과 상식·청렴 인사는 허구」라는 기사에 이어 「승진명부 기초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을 보도한바 있는데 이 같은 승진인사 불공정을 영천시 공무원노조 67%가 인정하는 바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본지 기사에 대해 제3의 언론사를 통해 「영천시 불공정인사 논란 "사실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 기사를 신도록 하는 등 본지 보도가 추측성 의혹제기라며 반박했다. 그러다 이번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본지의 영천시 인사규정 위반과 불공정 인사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 인사에 공직자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한 행정직 사무관 A씨는 "경북도의 감사 지적을 수용할 경우 연말 추가 사무관 승진요인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영천시가 5개의 국장급 자리를 마냥 비워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연말에 추가 사무관 승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22일자로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심의회의를 앞두고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더라도 해당 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승진을 위한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장급 대거 퇴임과 맞물려 연말에 국장·과장 등 대규모 직무대리가 발생할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장지수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 공무원의 무관심 속 흔들

[독자 카메라 고발]

수차례 개선 요구에 市는 "시정하겠다" 반복

도심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영천시의 무관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망정 네거리~영화교 사이 차량속도가 이중으로 부차체 혼란이 가중된다며 본지 독자가 지난 4월 제보해왔다. (사진) 본지가 즉각 영천시에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난 9월에도 개선되지 않아 영천경찰서와 영천시에 재차 속도표지 단일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10월 27일 현재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고, 본지 독자는 "말로만 즉각 시정하겠다는 영천시가 수차례 건의에



도 몇개월동안 방치해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그는 "도대체 몇번 더 건의해야 실천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영천시를 비난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3억 4,200만원을 투입해 도동교차로~영화교 등 도심 14개 구간에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시설개선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조해왔

지만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시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월 초 본지의 지적에 "속도를 60~40km/h로 서서히 줄여달라는 표시로 이중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면서 "불필요한 속도표지판은 즉각 철거하겠다"고 해명하 바 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수덕에식장

3층
80평 / 70평

1층
70평 / 32평

입대

병·의원 1·3층
특별우대 분할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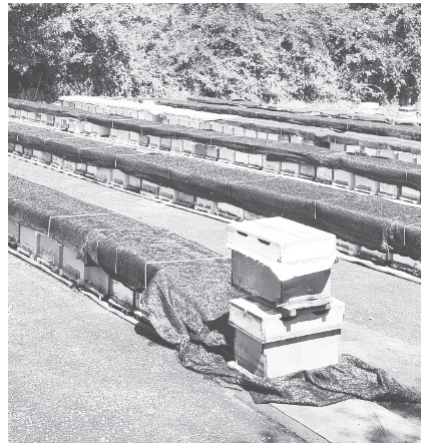
1층 약국 / 2층 당안신내과
영업중

"수덕출장뷔페 & 도시락" 사업은 계속합니다

문의 전화 010-3809-7100

영천시, 보조금 집행 경북도 지침 무시...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 형평성 논란

민원인 “규모 큰 농가 보조금 빼돌려 小양봉농가 혜택 쥐”
“양봉협회 독단, 운영위원회 파행...회의록 없이 공무원 거수기”
영천시, “특정 양봉군수 한정(제한)하지 말라는 규정 없다” 반박



영천시가 지역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봉보조사료(설탕)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규모 농가를 제한해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벌통(봉군) 수에 비례하지 않고 300봉군을 한도로 정해 특정 농가에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영천시는 지난 19일 지역 양봉농가에 양봉 보조사료(설탕) 9,114포 1억3천600만원을 긴급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도비(15%), 시비(35%), 농가자부담(50%)으로 설탕 1포 15kg 단가는 15,000원이다.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50%인 설탕 1포당 7,5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북도 보조금 배분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북도는 이번 양봉보조사료(설탕) 지원사업 배정 지침을 통해 「벌 사육군수(통수)에 따라 소요량에 비례해 사업량을 배정하라」고 명시했다. 즉 경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30군수 이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육군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라는 지침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道 지침을 어겨 30군수~300군수를 한도로 정해 161가구에 보조사료(설탕) 16포(12만원)~최대 118포(885천원)로 축소해 지원 논란을 가져왔다. 이같이 영천시의 방식으로 추산하면 1200군수의 농가가 받아야 하는 지원금은 3

백54만원이지만 결국 300군수를 최고 한도로 설정하면서 885천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영천시가 지역 양봉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규모가 큰 양봉농가의 보조금을 빼돌려 규모가 작은 농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 꼴이 됐다.

이같이 영천시가 특정 군수를 제한한 경우는 법령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부 기관인 경북도의 보조금

배분 지침까지 어긴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300군수 한도 제한은 지난해에도 있어왔고 양봉협회(영천시지부장) 운영위원회의를 거쳤다”면서도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타 시·군에서도 이같이 배분한다”고 해명했지만 ‘어느 타 시·군이 영천시와 같이 한도 군수를 제한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는 “확인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경산시에서 우리시와 같이 배분한다”고 말했다. <타도시 사례 별도 추가 보도예정>

이와 관련해 양봉협회(영천시지부장)는 “영천시에서 300군수를 제한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와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일부 위원들만 회의를 거쳤다”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부장은 “나는 이번 양봉보조사료 보조금을 받지 않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의 지역 양봉농가는 불만이 크다. 이들은 “공무원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조금을 배분을 하는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지난해에도 이같은 일이 있었지만 운영위원이 모르는 운영위원회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몇몇 특정인들과 논의하는 편의주의 행정으로 몰아가 양봉농가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영천시 축산과 해당부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운영회의록은 없지만 지부장과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실사 운영위원회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군수를 한정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상부기관인 경북도의 배분 지침을 무시해 또 다른 공무원 일탈 논란이 예상된다.

장지수 기자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전 A과장, 징역 1년6월

추징금 4억7,590만원
토지 283㎡ 몰수 명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구속 기소 5개월여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지난 19일 땅 투기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전 A과장(55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590여만원과 토지 283㎡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공판을 재개해 이달 7일 속행한 후 19일에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에 근무하면서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아 도시(도로)계획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으

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에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조카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무원 재직 기간과 직책, 담당 업무,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장지수 기자

파라인플루엔자 영천 상륙... 한 때 영·유아 입원실 부족

코로나19 증상과 유사
10월 22일부터 확산 고비 넘겨
면역력 약한 영·유아 확산
38~40℃ 고열 동반 주의 요구

전국으로 확산 중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Human parainfluenza virus, 이하 파라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천에도 상륙했다.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르면 22일 현재 5~6여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 한병원에는 “지난 22일까지 이같은 증상의 영·유아들이 늘어나

한꺼번에 수 십명이 진료를 받는 등 한 때 입원실이 부족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차 59명에 그쳤던 환자가 278명까지 매주 늘었고 90% 이상이 영·유아 인데다 38~40℃까지 고열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돼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매년 4~8월에 유행하던 파라바이러스가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시작돼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감염성이 높아 현재 영천시 관내 소아과에는 독

감 예방주사 접종시기와 맞물려 하루 200~300여명씩 진료를 받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파라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10월초부터 시작돼 지금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사람의 분비물,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고, 2~6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증상을 일으키며 근육통, 구토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소아 후두염이나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지적이다.

<야간> 차량털이 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유리창 파손 후 절도

망정동과 야사동 아파트 등 4건에 20여명 피해, 범인 잡혀
야간 주차시 차량 내 귀중품 보관하지 않아야 피해 최소

최근 한 달 사이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건의 차량털이 절도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인들은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영업용 택시와 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범행 20여일만에 체포됐다.

지난 10월 5일 새벽 3~4시 사이

망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영업용 택시와 승용차 등 10여대가 유리창이 파손되고 차량 내부가 흐트러진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9월27일에는 영업용 택시 4대가 이같은 방법으로 털려 차량 안에 보관되어있던 동전 및 귀중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사동 한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차량내 귀중품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사이 4건에 20여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범인은 주민들이 잠든 새벽 3시쯤 CCTV를 피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카메라 사각지대를 골라 이동하면서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다음 차량내부 보관함을 뒤져 금품을 털어 갔다.

다행히 범인은 잠복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여만원의 금품을 털렸다는 피해자 A모씨(영업용 택시)는 “범인이 젊은 10대 남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천시, 귀농·귀촌 정착 실적 귀농 유입가구 도내 4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준비-정착-창업까지 체계적 지원

영천시는 단순 지원 사업을 다양하고 준비-정착-창업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8년 160가구, 2019년 154가구, 2020년 149가구로 귀농 유입가구가 도내 4위이며 올해는 센터 입교생 31명 중 12명이 영천시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35세대가 사용 가능한 자양면 소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도시민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텃밭을 가꾸며 전문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농

업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총 15개팀, 90백만원을 지원하여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함께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최대 50만원 이내 유료 수강료도 지원한다.

끝으로 농지 구입과 주택 구성에 최대 3억 한도에 금리 2%로 융자를 해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로, 경영안정과 재이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정착을 돕고 있다.



영천시, 특정 아파트 위한 외부 주차장 설치 특혜 논란



취재, 해당 아파트주민 야간 불법주차 외에 사실상 주차수요 없어 인근 공영주차장 많은데 주차장 중복 설치는 예산낭비 지적
주차장 설치 이유... 영천시 "洞에 민원 쇄도했다" ◀▶ 해당 洞- "일체 없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 주민들 재산권? ▶▶ 시민 혈세로 해결?

■ LH문외센터럴아파트 주민 위한 주차장 개설 의혹

지역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영천시 일부 공영주차장(시민자율주차장 포함) 설치사업이 특정 아파트 주민을 위한 특혜 논란으로 말쑥이다. LH문외센터럴아파트(이하 LH아파트) 주민들의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제기다. 하지만 영천시와 LH아파트관계자는 "논리 비약이다. 공영주차장이지 LH아파트 전용이 아니다"는 반박이다.

영천시는 지난 9월부터 영천시 문내동 229-12 일대 LH아파트 북문 입구에 약 2억원을 들여 주차대수 50면을 오는 12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문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면 내⑥)가 한창이다. <괄호안 숫자와 문자는 도면내 위치 표시> LH아파트 주민들의 야간 불법주차수요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차장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게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 의혹의 주장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는 A씨(57세)는 "아침이면 이곳 길가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빠져나가는데 LH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대부분이다"면서 "(⑥)의 동쪽에 상가가 있지만 개발이 늦어지면서 빈 주차 공간(공휴지)도 많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기관건물 주차장이 있는데다 인근이 모두 원룸과 학교여서 LH아파트 주민 야간주차가 아니면 이곳에 주차장 신설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자 B씨는 "현장(⑥)인 원룸 앞과 LH북문쪽 이면도로(아파트 북쪽 출구 주변)는 야간에 뺏뺏하게 불법주차가 많다. 때문에 중앙동사무소에 민원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다. 특히 LH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 건의와 민원을 넣어 이렇게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영천시에서도 LH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의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LH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야간주차 불편에 대한 특혜성 소지가 없지 않다"는 귀띔이다.

실제 지난 10월 30일 아파트 베품시장이 열리는 오전 10시경 최기문 영천시장과 중앙동 직원 및 아파트 대표가 이곳 주차장 설치장소를

찾아 조성 현황을 살피는 현장도 목격됐다.

■ 공무원의 해명

주무부서는 "LH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중앙동에 주차수요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면서 주차장 설치를 민원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중앙동사무소는 "이같은 민원은 일체 없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반면 주무부서는 또 "도심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그곳(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며, LH아파트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 취재확인

본지가 지난 2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신설 주차장(⑥) 바로 앞에 주차대수 12면의 시민자율주차장(①)이 이미 설치돼 있어 마주보는 곳에 중복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 이곳(⑥)에는 인근 전체가 원룸 골목으로 LH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문내 공영주차장(⑥)이 신설되는 다음 블록(의료보험공단 뒷길)에도 상가는 일부 있으나 인근 유흥지(공터)가 존재하고, 인근에는 의료보험공단(A)과 보건회관 앞 문외1공영주차장(②), 국토정보공사(C), 종합복지센터(B) 등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LH아파트 주민의 주차난이 아니면 이곳(⑥)의 주차장 신설은 사실상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실제 유흥공터와 영천시가 이미 조성한 6곳의 공영주차장(임시포함)이 있고, 또한 중앙동사무소 등 가까운 공기관 주차시설도 6곳이나 있어 이곳(⑥)의 주차장 신설은 "공영주차장의 이름을 빌린 LH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야간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 아파트관계자 해명

한편, LH아파트관리소는 "우리아파트에서 영천시에 주차장 설치를 공식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통장회의에서 이같은 건의는 있었고, 또 주민들의 카페(SNS)에도 공식 건의가 있어 영천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 아파트주민 주차난 현황 분석

LH아파트는 2019년 완공돼 610세대가 입주해 있다. 1가구 2대이상 차량 소유자도 약 1/2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2대이상의 차량소유 가구에는 대당 5,000원(일종의 벌금)을 징수한다. 때문에 야간에는 주차난으로 아파트내 도로에 개구리 주차는 물론 아파트 외부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로 단지내 주차난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여론과 시의원 답변 및 문제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파트 내의 주차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해결해야 할 재산권 문제인데 영천시가 특정 LH아파트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아파트 주민외에 주차 수요가 없는 곳에 공영주차장의 이름으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 사용의 특혜소지가 없지 않다"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아파트 주민도 시민으로 주차불편 건의는 당연하다.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외부 일반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영천시의 이같은 예산 집행에 영천시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의문이다. 한 시의원은 "충분히 특혜 의혹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있을지는 솔직하게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이곳 '문내 공영주차장(⑥)은 국유지인 만큼 이미 설치돼 있는 맞은편 시민자율주차장(①)처럼 경사도 4~5%로 평탄작업만 하면 임시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영천시가 옹벽을 만들어 수평으로 포장까지 하기위해 2억원의 설치비를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사용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 받는다.

장지수 기자

▲ 사진글=LH문의 센터럴아파트 주민들의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다는 특혜성 신설주차장(⑥)의 인근 도면(별도 숫자와 문자는 기사의 설명을 돕기 위한 주석<접선 원>)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공영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건 논리 비약이다. 영천시의 도심속 주차공간 확보는 필연적 사업이며, 공영주차장인만큼 특혜 논란은 있을 수 없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상담문의 1577-7770

부채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는 갚고
매도한 농지에서 농사는 계속지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국회 국정감사 정부정책 돋보기 분석 두 번째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1일 국회 국정감사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을 심도있는 돋보기 분석으로 개선점을 제시해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만희 국회의원의 국감 돋보기를 정리 보도한다.<편집자>

[이만희 의원] 국감 ⑦
해양경찰청... 잠수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 중 총 453명이 사망한(실종 158명 포함)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의원은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특입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원이 있지만 지난 2017년 이후 대거 총원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대폭 완화돼 대원들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돼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원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채용시에도 잠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입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즉시전력인만큼 잠수에 대한 확실한 기본 역량을 전제로, 교육은 구조기술과 같은 세부능력 배양과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최일선에서 스스로



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선발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만희 의원] 국감 ⑧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등록된 물질의 수가 적고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인 물질의 경우 7배가량 비싼 3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 국감 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공매물량 대처, 유통경로 실태조사 부실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36만 8,000톤의 가공용 이외에 나머지 4만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틈타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밥쌀용 수입쌀 공매 낙찰물량은 그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2019년 2,259톤 → 2020년 8,791톤), 올해 9월까지의 2021년 낙찰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보다 1만톤 넘게 증가해 연말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낙찰된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 저가미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유통형태도 급격히 변화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일부 판매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어 어디에 도달하는지 aT는 최종 유통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에(올해 4월) 시행된 실태조사도 단 4일간에 걸친 곁핍기식 전화 설문조사와 과거 유통자료 등을 근거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식자재용으로 70%, 개인 30% 내외 추정'이라는 신뢰성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만희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 수입쌀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

들이고 우리 밥상에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 국감 ⑥
농협중앙회-1 장애인 거리두기 고용 억제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원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나타냈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고용율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였고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미이행 분담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122억원, 투자증권이 29억원, 14억원, 손해보험이 8억8천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다음호에 계속>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상북도본부 아마추어무선기사 4급 강습회 개최



- 일시 : 2021년 11월 7일(일요일)
- 장소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상북도본부(영천시 천문로921도림동)

강습회 준비서류

1.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교육담당작성	무선연맹 전파진흥원
2.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4. 신분증사본(학생:주민등록등본)	수강생 준비사항	경북본부
5. 증명사진		
6. 4급 강습비(₩ 150,000원)		
7. 핸디무전기 구매희망자		
※ 민영통신MYT9800무전기(₩120,000원)		
무선국개설허가신청비포함	전파관리소	
1. 무선국개설허가신청서		
2. 무전기 인종서		
3. 기기일련번호 사진		

강습시간표

시간/일자	2021년 11월 7일(일요일)	비고
09:00-10:00	DS5SMH 안부환(전파법규)	※수강생 준수 사항
10:00-11:00	DS5SMH 안부환(전파법규)	1.교육시간 30분전 입실완료
11:00-12:00	DS5SMH 안부환(전파법규)	2.대리참석 불가
12:00-13:00	점심시간	3.증명사진 1장 지참
13:00-14:00	DS5SMH 안부환(통신보안)	4.신분증 지참(학생:주민등록등본)
14:00-15:00	DS5SMH 안부환(무선설비취급방법)	5.강습비:150,000원
15:00-16:00	DS5SMH 안부환(무선설비취급방법)	(자격증발급수수료포함)
16:00-17:00	DS5SMH 안부환(무선설비취급방법)	6.무전기(MRT9800) (무선국 개설)
17:00-18:00	DS5SMH 안부환(무선설비취급방법)	구매희망자:120,000원 허가신청비포함)

- 강 사 : DS5SMH 안부환 (010-5950-6666)
- 경북본부장 : DS5RGY 김종팔 (010-2501-6410)
- 교육 문의 : 6K5TAI 총무이사 최규대(010-5559-3311) 6KOZZ 경북본부간사 황정아(010-5021-2262)
- ※ 교육 중간 DS5RGY 김종팔 본부장님 교양교육 있습니다.
- ※ 교육비 입금계좌 농협 351-0868-0475-33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상북도본부장



농산물 소비 위해 떡매치는 이승율 청도군수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장서 소비자와 함께

이승율 청도군수가 농산물 소비촉진과 깨끗한 청도 이미지 홍보를 위해 소비자와 어린이들이 보는 가운데 떡을 만들기 위해 찐 쌀을 치는데 쓰는 큰 방망이(떡매)를 힘껏 내리쳤다.

청도군은 27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운문면 오진리 일원에서 소비자, 마을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농촌 체험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장에는 반짝시장 운영으로 표고버섯 및 가공품, 대추, 밤, 고추가루 등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정 청도지

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알찬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 故 노태우 전 대통령 합동분향

도청에 도민분향소 설치

故 노태우 前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경상북도는 故 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 기간(26일부터 30일까지) 동안 범국민적인 애도와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기를 계

양하고 도민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도민분향소는 경북도청 동라관 1층 로비에 설치됐으며, 27일 오후부터 영결식이 이루어지는 30일까지 운영된다.

故 노태우 前대통령 장례기간 동안 08:00시부터 22:00까지 국민 누구나 도민분향소에서 헌화·분향이 가능하다.

영천시, 경북도 2021년 가축방역평가 우수상

대상(경산, 최우수(안동·봉화), 우수(구미·영천·의성·영덕)

경상북도는 21일 오전 도청에서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가축방역 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영천시는 구미·의성·영덕과 함께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에서 대상은 경산시가, 안동시와 봉화군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해 올해 경북도 가축방역 정상에 올랐다.

가축 방역 추진실적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시·군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

고 있다. 주요 평가 분야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안전한 축산물 공급,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 등 평가항목 4개 분야 15항목에 대해 23개 시군을 평가·검증했다.

영천시는 '가축방역 시책 계획 수립과 인수전염병 관리대책' 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김상조 경북도의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촉구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인건비 등 고용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가 경북도의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경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다.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의원(사진·구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제326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2021년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서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을 포함하여 총 39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육상, 축구, 야구, 핸드볼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조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학교

와 교육청에 일부 코치에 의한 부정청탁 등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벗어 나기 위해서라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65.9%가 3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이 73.7%로 나타났다. 장지수 기자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친절, 겸손, 정성으로 고객님의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영천농협 클린주유소

면세유 취급, 난방용 등유, 경유 정품 정량 신속배달!

한국석유관리원 품질인증 주유소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클린주유소

이용시간 : 평일 08:00-19:00
일요일 08:00-18:00
매주 토요일 휴무

※농협채움카드 결제시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조합원님들은 조합원실적이 따로 적립 됩니다

영천농협 클린주유소
T. 054-338-3851
영천시 장천2길 23
(영천농협 농산물공판장 내)

영화교 우방아파트

영화교사거리

영천도로

트라이얼 마트

영천농협 클린주유소

광천온천랜드

망청주공아파트

포항

한국폴리텍 영천로봇캠퍼스 재학생 대내·외 연구 성과 뚜렷

개교 6개월 만에 경진대회 대상 이어 연구논문 학술지 등재

한국폴리텍대학 영천로봇캠퍼스가 개교한지 6개월여 만에 재학생들의 연구실적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대학측에 따르면 로봇자동화과 재학생(1학년 김동현, 서필원, 배종석) 학습동아리 'RBRV'(Robot Revolutionist)팀(지도교수 김현돈)이 '합성곱 신경망(CNN) 기반 의약품 인식기 설계' 논문집이 대한임베디드공학회 10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입학한지 6개월여 만에 2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같이 학술논문지에 등재된 것을 학교측은 "매우 이례적으로 입학 당시 우수 인재들이 대거 입학하고 우수 교수진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때문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RBRV'팀은 지난 10월 6일 전국 7개 대학교 총 21팀 81명이 본선에 참가한 가운데 (쥘오므론에서 주최한 '2021 옴론 대학생 스마트팩토리 아이디어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스마트팩토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RBRV'팀은 '환자 얼굴을 인식하는 간병로봇'으로 환자와의 대면 접촉 없이 약이나 물품을 대신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방호복에 따른 활동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학교측이 설명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로봇캠퍼스는 지난 10월 4일 1차 수시모집 접수를 마감한데 이어 오는 11월 8일 수시 2차 입학생 모집을 시작

로 제2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로봇기계과(30명) ▲로봇전자과(30명) ▲로봇자동화과(30명) ▲로봇IT과(30명) 등 4개 학과에서 120명을 모집한다.

수시 2차는 2021.11.08.(월) 10:00~11.22.(월) 23:59까지 정시모집은 2021.12.30.(목)10:00~2022.01.12.(수) 23:59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로봇캠퍼스 홈페이지(kopo.ac.kr/robot)를 참고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지역 양봉농가 올해 작황 흉작,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감

영천시, 꿀벌 보조사료(설탕) 9,114포 1억3천600만원 긴급 지원

양봉농가의 휴면기가 도래했다. 통상 꿀벌들은 10월 중순 이전에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 늦어도 11월까지 꿀벌들의 월동준비가 완료되고, 이 시기부터 사실상 양봉농가의 휴면기나 다름없다. 벌통(군) 안에서 최대한 산란을 많이 받은 후 저장해 둔 먹이로 겨울 동안 유충을 잘 키워 다음 해 봄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생산(꿀)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양봉농가에서는 지금 시

기에 사양(1*) 관리에 들어간다. 즉 월동기간 내 사양의 주 원료인 설탕을 사용해 꿀벌의 먹이와 영양관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10월부터다. 사양(1*) <꿀벌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알맞게 공급해 꿀벌의 건강을 유지시켜 산란 등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 꿀벌이 가진 유전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하게 하는 과정>

때를 같이해 영천시는 이달부터 1억3천600만원을 들여 양봉 보조사

료인 설탕 9,114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 양봉농가는 흉작으로 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50% 이상 감소해 사실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양봉농가에 양봉자재를 공급하는 A씨(청통면)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0년보다 올해는 더 줄어들어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이 급감하다 보니 화분떡 등 보조사료 또는 자재공급까지 덩달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200여 봉군을 관리하는 화북면 천문대양봉원(대표 김태권)은 "올해 일기가 고르지 못해 비가 많이 내리고 야생화가 활발하지 못해 내리 3년 흉작으로 올해 꿀 작황도 지난해에 비해 1/2정도로 줄었다"면서 "벌통에 '바로아음애'와 '가시응해' 등 진드기까지 피해가 극심해 양봉농가들의 힘든 한해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에 따르면 259 양봉농가에 28,928군(벌통)이 있다.(2020년 말 기준) 이번 보조사료는 30군 이상 300군을 한도로 161여 농가에 최소



16포에서 최대 118포까지 모두 9,114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료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작은별마을

市, 첫 웹드라마 제작 '작은별마을' 매주 금요일 유튜브 '별별영천'

4부작 기획·제작 지역홍보

영천시홍보전산실 미디어팀이 처음으로 4부작 웹드라마를 기획·제작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홍보전산실은 지난 20일 이같이 밝히고 첫 웹드라마의 주제는 '작은별마을'로 22일부터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별별영천>을 통해 순차

적으로 매주 금요일 방영한다고 밝혔다.

웹드라마 '작은별마을'은 도시에서 실직한 큐레이터 '지수'가 영천으로 이사오면서 낯선 환경때문에 동네사람들과 갈등을 겪지만 곳곳에 다가와주는 영천 사람들로 인해 서서히 적응해가며 영천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촬영지는 주로 영천의 명소를 배경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화면에 담았다.

영천시 뉴미디어담당은 "드라마 4편, 뮤직비디오 1편 등 총 5편으로 제작해 회당 10분 내외 분량을 2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될 예정이다"며 이번 첫 웹드라마 제작 소감을 밝혔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멋진날

제14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2021.11.9. 화 7:00pm

영천시민회관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 T. 054.330.6680)

출연진

소프라노 신미경 이화영 이윤경 레너 김완준 신현욱
바리톤 박정환 김만수 펠리체양상블 피아노 장윤영

주최 | 영천시민가을음악회추진회 주관 | 재영계대학교 영천동문회,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동문회

후원 | 경상북도 STAR 영천시 시민신문사

시민 곁을 지켜주는 바른 언론 되길

이만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천신문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과 숙원 과제들을 깊이 있게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천신문만이 할 수 있는 탄탄한 기획과 현장 밀착형 취재를 바탕으로 영천신문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영천신문은 지역의 작은 소식들조차 놓치지 않고 소중히 보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으로 영천시민들의 희망을 있고 지역의 미래를 훌륭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회를 더 나은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천신문이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넓은 시야로 건전한 비판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바른 언론 사로서 영천시민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천 소식의 1번지이자 소통의 중심점인 영천신문이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창간 10주년을 맞는 영천신문의 발전과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3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영천신문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왔습니다. 지역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온 장지수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어렵지만 합시다.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도, 투자유치도, 경제·산업도, 문화·관광도, 농업업도 결국 민생으로 귀결되고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민생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주마가편의 절박함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도 제대로 된 공항을 빨리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융합한 연구중심 도정으로 전면 혁신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으로서 영천신문이 든든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도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지역 여론 선구자 되어 달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2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영천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늘 도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와 의회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여론의 선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0만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며,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심도 깊은 취재보도 기대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년 창간 이래로 지역의 여러 소식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취재에 임해 오신 장지수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영천신문은 그동안 지역의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취재에 임해 왔습니다. 이처럼 발로 뛰는 취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도 신문을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확하고 심도 깊은 취재보도를 기대합니다.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 모두의 생각과 비전을 담아 더 나은 영천시로 발전하는 데에 시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비판과 발전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영천신문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언제나 독자들의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영천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영천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의 신뢰 속에 더욱 도약하길

양재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영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천 지역의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정론직필의 자세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천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영천신문은 10년이란 긴 시간동안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왔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소신 있는 기사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신문이 되어주시라 믿습니다.
 올 한해 영천교육지원청은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꿈을 펼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천교육 현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민들의 신뢰 속에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는 언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문

김재훈 영천소방서장



정보의 창! 소통의 미래! 영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훈훈한 이웃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천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장지수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천신문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국적 이슈들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정세 속에서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진실하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매체로서 지역 시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론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영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호에 축하 이어집니다

유승민, 영천시 환영받지 못해... 당원 '국민의 밭상', 당 밖에선 '배신자'

여성당원 '배신자', '국민의 밭상' 두개 별명 왜 붙었나 해명 요구 당 밖에서 지역 우리공화당원들, "적과 내통한 탄핵주범 여기 어디라고 왔나" 유승민-당원들에게, 경선 끝나면 "깨끗이 승복하고 포용하겠다" 약속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영천당협(위원장 이만희 의원)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당협 사무실 내에서는 당원이 '국민의 밭상'이라며 질타했고, 당 밖에서는 지역 우리공화당 당원(유튜버)들이 집결해 유 후보에게 "당장 영천을 떠나라"며 강한 야유를 받았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영천당협 사무실에 도착해 참석 당직자 소개에 이어 자신의 대선 후보 출마 이유에 대하여 20여분가량 30여명의 참석 당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유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한 여성 당직자가 유 후보를 향해 "경제학 박사로 국가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찬하지만 그동안 유 후보가 이룬 성과가 뭐 있느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같은 당 후보의 약점이나 강조하는 것(내부총질)은

옳지 못하다."면서 유 후보에게 붙은 '배신자', '국민의 밭상' 두 개의 별명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이 여성당원의 질문에 "대구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제가 유치했다"면서 여성당원의 첫번째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했고, 두번째 내부총질 공세에 대해 "제가 22년 정치하면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 TV 대선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5년 전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고 한 대통령(박근혜)을 탄핵당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는 답변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의식한 해명을 했다.

또 유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11월 5일 최종 우리당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긴 사람은 화끈하게 당 전체를 포용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반드시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했다. 경선 후 승자독식(자기 사람만 기용하는)때문에 당이 분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식 연설이 끝나자마자 당원들과의 개별 촬영 없이 짧은 단체사진 한장만 찍고 서둘러 당을 떠나면서 당 밖에서는 우리공화당 영천지역 당원들과 마주쳤다.

유 후보가 당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20여명의 유튜버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앞서 유 후보가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이들 공화당원들은 영천당협 사무실 입구와 도로건너까지 자리를 마련해 스피커로 유 후보에게 "적과 내통해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배신자가 올 곳은 아니다. 여기(영천)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나?, 나라 망친 주범은 당장 후보를 사퇴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유 후보를 둘러싸자 유 후보는 차량을 타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유승민 후보는 이날 TK 당심을 옮기기 위해 고향인 대구에 들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후 곧바로 호텔수성에서 언론단체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또한 유 후보는 경북 영천시·청도군과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군 당협에 대한 방문 일정으로 TK지역 당심을 얻기 위한 숨바꼭질 발품을 재촉했다.

장지수 기자

기획 연재



김효정 기자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③ 30대 무인다운 기상 넘치다

백척간두(百尺竿頭), 위국충정(衛國忠情)
임란에 붓 던지고 일어나 전장 넘나든 기개

지난호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② 10대-20대 불우하게 보냈나?에 이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1세의 나이로 의병이 되었다. 영천의병장 정세아와 왜군을 무찌르는 데 앞장 섰고 1598년 선생이 38세 되던 해 겨울 경상좌도병사 성윤문의 막하에 들어가 임진왜란 막바지에 싸웠는데 그 때 부산에 머물러 있던 왜적들이 밤중에 달아났으므로 성윤문이 10여일 그곳에 머무른 뒤, 본영으로 돌아와 수군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태평사」를 지었다. 아래는 「태평사」의 일부내용이다.

-태평사-
나라가 한쪽에 치우쳐 작고 해동에 버려져 있어도
기자(箕子)가 끼친 풍속 고금없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워

-중략-
섬나라 오랑캐 백만이 하루아침에 총돌하여 수많은 놀란 생명들이 칼 빛을 좇아 나서니 들판에 쌓인 뼈는 산보다 높아 있고 큰 도읍과 고을은 승냥이와 여우의 소굴이 되었거늘

-중략-
하늘이 교활한 도적을 죽여 인의(仁義)를 돕는다.
파도 없는 태평성대야말로 지금인가 여기 노라.
못생긴 우리 무리도 신하가 되어 있다가 임금 은혜 못 갚을까 감히 죽고야 말겠다는 마음 가져
칠 년간을 분주타가 태평한 오늘을 보았도다.

-중략-
살아남은 생령들아, 임금님의 은혜인 줄 아는가.
거룩한 임금님의 은혜 깊으니 오륜(五倫)을 밝혀 보세.
백성을 부하게, 잘살게 하고 가르쳐 주면 절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늘의 운수가 돌아옴을 알겠습니까, 하나 님이시여.
우리나라를 도우시어 만세토록 끝없이 누리도록 하소서.
요순 같은 천지에 하(夏)·은(殷)·주(周)의 해와 달 비추소서.



노계 박인로

오, 만년 동안 전쟁을 없애소서.
밭 갈고 우물파서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도 거룩한 임금님 모시고 함께 태평을 즐기리라.

「태평사」는 전문72절, 총 146구로 된 가사이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기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왜군의 침공으로 혼란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되어 혼란한 상태와 군인들의 활약, 전승의 모습에서 마침내 개선을 부르며 돌아오는 기쁨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충정이 깔려있다.

「태평사」를 통해 선생의 충성된 마음이 잘 표현되었으며 무인다운 기상이 넘치는 작품이다. 노계 선생의 나이 39세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수문장, 선전관, 만호의 직위에 올랐으나 벼슬이 목적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라가 위급함에 붓을 던지고 일어나 전장(戰場)을 넘나들 수 있는 기개를 가졌고 오직 위국충정(衛國忠情)의 일념으로 의병에 참전하여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조국을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 공을 나타내려는 일에는 무심하였던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선생은 30대에 왜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걱정하며 앉아 있기보다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국가적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 거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본다. 국난에 전쟁터로 뛰어 들었고, 전장을 누비면서도 지필묵을 가까이하는 학문적 자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사」와 같은 가사문학이 발전한 것이다.

「태평사」는 선생의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문학사상 조선 3대 시인으로 손꼽힐만한 재능이 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노계선생의 「태평사」를 통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란다.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에 대한 연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하시설물 정보구축사업 현장점검 영천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영천시는 2021년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1차)에 대하여 정확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영천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 추진 후 영천시 전 지역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2단계 1차 사업으로 임고면과 고경면을 시행 중이며, 지하시설물(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해 측량을 통해 취득된 위치정보 및 속성 자료들을 데이터화해 기록하고,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대가가스 폭발 사고 및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사건 등 예상치 못한 지하공간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지하시설물의 지도를 만들어 영천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정확한 전자도량(전자지도)법 등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하지도를 이용하여 도로 및 각종 공사의 굴착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최근 도심 내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빈번하여 예방을 위한 지하지도와 지하 안전 관리와의 연계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이며,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영천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시행 법령...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경비원 갑질 금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지난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개인 주차, 택배 배달 등을 시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서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평소 과태료 3배에 달하는 12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고지된다.

◆경비원 갑질 금지법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이같이 밝히고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 주차)이나 택배 물품의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 보조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비원' 대신 이름을 바꾸어 '관리원'으로 고용하는 꼼수를 벌

일 경우 교묘히 범망을 피해 오히려 경비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 '경비원 갑질 금지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어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천에서 6년째 근무한 한 경비원 A씨(야사동 72세)는 "관리원은 '경비원'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비원에게 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꿔 근무시키는 현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를 예시해 이 같은 사례를 열거해 실제로 고용업체들의 경비원 관리업무 수행 꼼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도표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지난 5월부터 계도해 왔지만 지난 21일부터는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집중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로 위

반할 경우 과태료는 평소 4만원 보다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선으로 구분하면 ▲흰색실선=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으로 주정차가 가능 ▲황색점선=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 ▲황색실선=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황색두줄실선(복선)=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특히 등교시간 오전 8시~10시, 하교시간 오후 1시~6시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오전8시~오후8시 사이 단속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량은 13만원이 부과된다. 단 등하교시 학교측이 안심승·하차 존을 설정해 아이들 승·하차시 잠시 정차를 허용한다.

장지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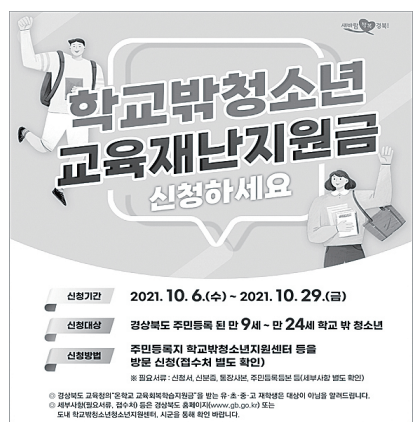
업무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관리업무	청소 미화 보조	· 집초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내 쓰레기 수거 · 재설치업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조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업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주차 관리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우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 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보관 및 대장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이라 구체적 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10/29까지 접수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



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며, 접수기간은 29일 까지이다.

경북도에서 대상자 검토 후 11월 중순에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일인 10월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천시인 만 9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출생일 1996.10.1. ~ 2012.10.31.)

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 및 유예·휴학 학생이거나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과 신분증이며, 센터에 미등록된 청소년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되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38-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법정 의무교육인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11월에 화상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영천시는 18일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지난 10/13~15일까지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했다면서 미이수자는 화상교육을 통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2021년 10월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운수종사자는 여객 509명, 화물 1,559명이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 시청각 교육, 안전운전 및 개정된 도로법규, 교통사고 보상 및 보험적용사례 등의 현장사례 위주의 교육을 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 50명 미만으로 축소 진행했다.

영천시는 이번에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는 11월에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 맞춤형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선정

임산부·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주기적 방문 전문 서비스 제공

영천시는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보편방문, 지속방문)을 통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편방문(기본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 발달 확인, 아이 돌보기에 관해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평가점수가 2점 이상인 지속방문 가정은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평균 25~29회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영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12월 19일 까지

영천시는 이달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변호관을 영치 할 계획이다.

영천와인의 품질 국제 와인 품평회서 인정

오계리 화이트 와인, 베를린와인트로피 '은상' 수상

영천와인이 국제와인품평회에서 또다시 이름을 떨쳤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와인트로피(Berliner Wine Trophy)' 하계 대회에서 영천시 오계리 와이너리의 화이트 와인이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제와인기구 OIV의 승인 및 감독하에 개최되는 국제와인품평회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베를린와인트로피'는 세계 5대 국제 와인 품평회 중 하나이다.

2019년에도 아이스와인으로 같은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오계리 와이너리는 와인 품질에 있어 국제적인 검증을 품목별로 쌓아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영천시 소재 고도리 와이너리, WE 와이너리 등 다른 와이너리에서도 과거 베를린와인트로피 수상 이력이 꾸준히 있어온 사실은 영천시의 특성화 사업인 와인산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인 영천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포도와 와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와인산업 선포식 이후 영천와인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너리 14개소 육성, 연간 27만병 생산, 국내 와인시장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와인투어를 운영하고, 와인 페스타를 개최하여 농촌자원의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동정

국감 스코어보드...강렬한 이만희



이만희 의원이 머니투데이 [the300]이 뽑은 興·野 각 상임위 '베스트' 의원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 민원해결의 장인 농해수위(종합) 감사에서 진정한 농어민 대변자를 뽑는 국감 스코어보드에 "강렬한 이만희, 팔색조 어기구, 친절한 윤재갑"이라는 제목으로 주요질의 키워드 최상위에 랭크됐다. 이번 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통적인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경북 균형발전 천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2021년 3분기 시민·공직자 표창 수여식 개최



최기문 영천시장은 27일 시민회관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2021년 3분기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료의원·사무국 직원에 감사



조영제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 의장은 지난 22일 폐막한 제 21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통상적인 인사인 면은 있으나 진심을 담은 고마움의 표시라며 본회의 당시 인사를 언급했다. 당시 조 의장은 본회의 마지막 인사에서 "임시회 동안 집행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철우, '제페토'서 경북 청년대표 만나

경북도가 독도의 날(10.25)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27일 15명의 경북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상세계 독도맵(지도) 국내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서 만나 독도알리기를 위한 퍼포먼스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 독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도정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 5G 등장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 받는다.

김용학·하경원 씨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결혼·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 기여

올해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에 영천 김용학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하경원 극단올타리 대표가 선정됐다.

영천시는 지난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진행된 '2021년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김용학 회장과 하경원 대표가 나란히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도민상은 서기 675년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대군을 격퇴하여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해 매년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북도의 명예를 드높인 도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도민상 수상자는 경북도와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현지 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극



복, 일자리 창출, 감동 경북, 지역사회발전 등 총 4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용학 씨는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장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화합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하경원 씨는 극단올타리 대표로서 2010년부터 출산장려연극을 제작하여 공연,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지수 기자

영천여고, '故 김시태 육군하사' 유족에 6·25 화랑무공훈장 전수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허영선)는 지난 26일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6·25전쟁 유공자 김시태 육군하사의 화랑무공훈장을 김 하사의 손자 김재춘씨에게 전수했다.

故 김시태 육군하사는 육군 제11보병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전투에 참여해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

해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허영선 영천여고 교장은 "무공훈장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으면 더 영광스러웠겠지만, 늦게라도 유가족에게 전수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선열들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실화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실화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의원연구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이영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영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정구·우애자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지방교육재정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경상북도 시부 교육경비보조 등에 대한 연구가 골자다.

이영기 대표의원은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다져,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해 연말에 한차례 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시니어클럽,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 MOU



공단사업장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적극 협력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훈)과 영천시니어클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사업장 내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기관은 20일 이같이 밝히고 노인친화적 문화 정착은 물론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장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영천시 거주 노인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인프라 공유 ▲온·오프라인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재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부가가치세의 진정한 의미
매출액의 10% 중 매입액 차감 후 납부금액 계산
사업자 매출 아냐... 영업이익 계산 때 잘 고려해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갖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결국 납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즉,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소비자 대신 납세의무를 갖는다. 때문에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미와 소득에 대해 알아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액에 10%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 공급가액에 10%를 과세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

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를 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말하고, 판매관리비란 기업의 유지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표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전선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등을 말한다.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많아야 앞으로의 사업이 잘 유지될 것이라 판단가능하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상에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로 오해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매입세액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계산해서 물품의 가격을 책정한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부진이 발생할 것이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전세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

문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제도 중 어느것이 더 좋을까?

답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부상 설정 순위에 따라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것인데 반해, 확정일자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 제도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확정일자제도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그 순위에 따라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는 전입신고(주민등록)만 해두었을 뿐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만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만으로도 충분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나 주택 인도등

요건이 불필요하다. 둘째, 확정일자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며,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그 요건을 갖출 수 있음에 반해 전세권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절차도 복잡해 법무사의 협조를 얻는 경우가 많다. 또 전세기간 만료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셋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도 가능하다.

넷째,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으로써 보호되는 확정일자제도에서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대지 불포함)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등기 한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사설]

권력에 아부(阿附)하는 공직자 측은하다

아부(阿附)가 만든 공직자 像(상), 이제 끝내야
무소속 재선...정점에서 내려오게될 불안감이 진양지

아부(阿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거나 넘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 얻어낼 것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노린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인사권자의 눈치를 이것으로 답한다. 인사권자에 대한 아부(阿附)는 곧 승진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천시의 일부 공무원은 이 아부(阿附)로 실세가 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6.1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천시장에 당선됐다. 그리고 8개월 뒤 다시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린다. 무소속으로 당선돼 보수당에 입당하지 않고 또다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전례가 없지만 아부(阿附)하는 공직자가 많을수록 재선 성공에 청신호인지는 알 수 없다. 최 시장 들어 이같은 아부(阿附)공직자가 실세가 되었다는게 나만의 생각같지는 않다.

지난 19일 지역 양봉농가에 양봉 보조자료 지원을 위해 보조금(도·시비)을 배분하면서 시는 상부기관 보조금 배분 지침을 어기고 소수(대농=大農)의 보조금을 빼내 다수(小農)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20여농가의 보조금을 줄여 140여 농가가 혜택을 본 것이다. 쉽게 말해 표가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준 꼴수다.

보도자료 부풀리기도 아부(阿附)와 같은 맥락이다. 어떻게해서든지 시민들에게 현직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치적을 알려야 재선에 도움이 된다. "우리 시장님 정말 청렴하고 일 잘하신다"고 하면 재선에 청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최 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철 산부인과에서 출생아 숫자가 줄어지고 있는데도 개원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해 본지 지적을 받았다.

또 9월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홍보하면서 지방상수도공급,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상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나열해 부풀리기 홍보를 하는 등 인사권자 지적 알리기에 아부(阿附)하는 공직자가 측은 할 정도였다.

예산확보 숫자 부풀리기 꼼수도 예외는 아니다. 마늘가공분야 도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8억1천만원을 확보했다는데 알고 보니 총 사업에 꼼수가 있었다. 실제 이 사업 도비 확보는 2억4천만원이 고작이고 나머지 5억7천만원은 농가 자부담이었다.

어느날 양봉 산업 경영안정에 팔 걸었다는 영천시. 이상기후로 벌꿀 수확량이 급감해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를 위해 1억3천6백만원을 긴급 확보해 양봉농가에 9,114포의 보조자료(설말)을 지원한다. 알고보니 여기서도 도비(15%), 시비(35%), 농가자부담(50%)로 영천시가 확보한 금액은 6천8백만원이다. 이 때문에 일선 기자들도 속았다. 영천시가 예산 1억3천6백만원을 긴급 확보해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LH문외센트럴 아파트 주민들의 야간 주차를 위한 특혜성 공영주차장 조성도 아부(阿附)성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야간 불법주차수요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필요한 조성이다. 인근에 이미 공영주차장 시설이 다수 포진하고, 경사도가 완만해 평탄작업으로 쇄석만 깔아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곳에 2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특혜성 주차장을 신설해준 꼴이다. 선출직으로서 표가 있는 곳에 예산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이 또한 권력자에 대한 아부(阿附)성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공직자의 아부(阿附)성 굴종의 원인은 모두 인사권자의 재선 욕심에서 비롯된 인사권 독재의 산물이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공직자다. 한정된 자리에 비해 승진수요자가 더 많은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이유다. 권력을 갖게된 인간은 정점에서 내려오게될 불안감과 그 정점을 즐기려는 자기실현 욕망이 바로 아부(阿附)를 받고싶은 구조로 변한 것인데 여기에 수요자가 알아서 앞드리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다. 아부(阿附).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다. 특히 자신의 승진을 위한 공직자의 아부(阿附). 구경 할만큼 하지 않았다. 이제 끝내자. 소수가 웃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불편함이 공직사회의 또 다른 아부(阿附) 像(상)을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주)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시민의 소망이 펼쳐집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올바른 가치와 변화를 이끌어가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도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 2021년 제4회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비대면
공모전

1. 취지

영천 출생의 위대한 무인이며 문인 가객인 노계 박인로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타 지역에 노계 박인로의 존재가치 및 위상을 재조명 함.
나. 백일장 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노계선생을 재평가하는 계기.
다. 영천이라는 터전에 노계의 연관관계의 필연성을 주지.
라. 가사문학에 대한 영천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올해 대회는 코로나-19(COVID-19) 관계로 참가신청서 및 창작 작품을 아래 일정에 따라 비대면(우편, e-mail)으로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일정

가.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1) 비대면참가(작품제출)일정 : 2021년 10월 4일(월) ~ 2021년 11월 19일(금)

(가) 우편접수 : 2021년 11월 19일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나) e-mail접수 : 2021년 11월 21일(일) 24:00시한

(다) 글제(詩題) : 하단참조

(2) 참가요령

(가) 참가서식

우리 사업회 홈페이지(<http://noge.or.kr>⇒알림⇒행사공지)에서 다운로드

- 1) 참가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부.
- 2) 작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된 원고지 사용) 1부.
- 3)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작품 제출일 기준 학생증, 재학증명서등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생이 아닌 경우 참여 불가)
(수상작 대학입학 사정 등 근거로 삼고자 함)
※ 학교별 단체응모인 경우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명의의 참가확인서로 3)항 대체가능합니다. (양식별도)

(나) 제출처

- 1) 우편주소
(우)38892 / 경북 영천시 금완로 44-1, 2층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 2) 대표e-mail : yh8119@hanmail.net 또는 korea0x5812@nate.com
- 나. 작품심사 : 2021년 11월 24일 ~ 26일 / 당 사업회 사무실

다. 입상작 발표 : 2021년 12월 3일(금) / 사업회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보
라. 시상식 : 2021년 12월 10일(금) 14:00 / 노계문학관 도계서원
※ 코로나-19등의 사정에 따라 시상식 행사일정/장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참가대상 / 부문

가. 대학 일반부 : 가사, 한시, 시조, 현대시(운문,산문,수필) / 4개 부문 한정
나. 초·중·고 학생부 : 가사, 시조, 현대시(운문,산문,수필) / 3개 부문 한정
※ 학생부 응모시 代作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작품창작을 권장하며 지도교사상을 신설하였으니 학교단체별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별 부문중복참가 가능 (단, 1인 2개 부문 한정, 시상은 1개부문만 선정)
예) 한시+시조, 시조+현대시, 가사+시조등

4. 백일장(공모전) 시제(詩題)

가. 일반·대학부 (⇒분야별 주제로 창작)

- (1) 가사 : - 도계서원을 찾아서 - 발길이 - 노계곡
- (2) 시조 : - 갈대 - 백일홍 - 가족
- (3) 한시 : - 追慕 朴仁老先生 忠孝精神 (추모 노계박인로선생 충효정신)
- 운자 : 仁親○人○神○春 (인친인신춘)
- (4) 현대시 : - COVID19 (코로나19) - 가족 - 길

나. 학생부(초·중·고) (⇒분야별 주제로 창작)

- (1) 가사 : - 할머니 - 형제 - 인연
- (2) 시조 : - 山水自然(산수자연) 및 환경(기후변화) - 감 - 흥시
- (3) 현대시 : - COVID19 (코로나19) - 용서 - 꿈

5. 작품제출관련 참고사항 : 홈페이지 참조

6. 시상내역

가. 대학 일반부 : 총 1,000만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입선상)
나. 학생부(초·중·고) : 총 360만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입선상)
다. 지도교사상 : 경상북도 교육감상 / 2명 / 시상금 각 20만원
※ 학교단위 다수 수상학교 교사 선발 시상



■ 주최·주관
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문인협회, 영천문화원, 울산문화원, 성균관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일대학교, (사)신라오름보존회(박씨대종친회), 조양시사, 박약회, 조선일보, 매일신문(대구), 승덕전신문, 한빛신문, 영천신문

기타문의처

사무국장 : 010-3259-0010
재무이사 : 010-5177-5332

홈페이지 주소 : <http://noge.or.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Society for the Commemoration of Nogye, Park In Ro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업활력 + 인구증가 = 희망영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 ◇ 청춘공감 카페 운영
- ◇ 취업특강 및 컨설팅
- ◇ 언택트 취업캠프
- ◇ 잡(JOB) 미팅 데이
- ◇ 청년채용기업 컨설팅비 지원
- ◇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등

영천상공회의소 주요사업

- ◇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 ◇ 상공인 권익신장 활동
- ◇ 기업애로 및 규제파악 건의
- ◇ 무역인증 및 공동인증 발급
- ◇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시행
- ◇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경상북도, 영천시 협력 사업

영천상공회의소